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8.2.(목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8. 2.(목)	담당부서	산업일자리혁신과 산업기반총괄과 뿌리산업팀
담당과장	최연우 과장(044-203-4220) 김정기 팀장(044-203-4255)	담 당 자	차세운 사무관(044-203-4224) 이예원 사무관(044-203-4256)

산업부 장관, 뿌리기업 현장방문

-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 논의 -

□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.2일(목) 15:00에 부산광역시 소재 **뿌리기업**(주조업체)**인 터보파워텍㈜를 방문**, 최저임금 인상 등의 **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**했다.

< 현장방문 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'18.8.2일(목) 15:00~16:00(60분) / 터보파워텍㈜*
* 부산 사하구 소재 주조업체(Packing ring 등 발전터빈부품)

○ 참석자 : 산업부 백운규 장관, 산업정책관 등
터보파워텍㈜ 정형호 대표, 정택호 대표

○ 논의내용 :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사현안의 영향 및 대응상황
뿌리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책

□ 터보파워텍㈜는 우수기술연구센터(ATC) 운영 등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여 **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소재 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**한 업체로서

○ **발전터빈 부품을 국산화**하여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고, 이를 발판으로 GE, 미쓰비시, 히타치 등 **글로벌 기업 수출에 성공**한 업체이다.

□ 정형호 터보파워텍㈜ 대표는, 최저임금 인상이 **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**이 될 수 있어, 노무사·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으며,

○ '20년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*되면,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**기술인력 확보**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.

* 터보파워텍㈜는 50~299인 기업에 해당하며, `20.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

□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, 주52시간 근무는 **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**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**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**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,

○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**뿌리기업, 유통, 섬유** 업종에 대하여는 **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 있다고 설명했다

□ 백운규 장관은, 소상공인·영세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**일자리안정자금** 지급,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시행 중이며,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임차인 보호 등 **추가 지원책도 정부에서 논의 중**이라고 하면서,

○ 특히, 뿌리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게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① **(생산비용 절감)** 협동로봇(산업부), 로봇활용 제조공정 혁신(중기부), 자동화·첨단화지원(중기부)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의 **생산성 향상을 촉진**

② **(매출 증대)** 뿌리기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, **발전공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**하고,

- 발전공기업이 부품·장비 기업들의 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는 **테스트베드로 기능**할 수 있도록 유도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서성민 / 홍보담당관 / 2018-08-03 09:18:50

③ **(수익성 개선) 시장동향·필요기술수준**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, **글로벌 기업**에 좋은 거래조건으로 수출·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
- 수탁·위탁기업간 **성과공유제 계약모델을 활성화**하여, 뿌리기업에도 기술개발 등에 따른 **이익이 충분히 돌아가도록** 유도

* 성과공유제: 수탁기업이 원가절감, 부품공동개발 등 수탁·위탁기업간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며, 그 성과를 수탁·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

* 터보파워텍㈜는 동서발전과의 가스터빈 seal 국산화 개발로 상생협력 표창 수상(`09년)

④ **(기술력 확보)** 터보파워텍㈜와 같은 **뿌리기술전문기업**에 대해, 첨단뿌리기술 R&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

□ 백운규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**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**임을 밝히고,

○ 특히, 정부가 무심코 지나치고 마는 **기업의 현 애로가 없도록,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**할 것임을 다짐하며 [illegible]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차세운 사무관(☎ 044-203-42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